

친구에게 “따뜻하고 순화된 언어로 말해요” “따순말” 전하기 이벤트

신학기 친구에게 “따순말”을 전해보자!

① 따뜻한 말 전하기

감사 전하기 “친구야 000해서 고마워”

칭찬 전하기 “친구야 난 너의 000한 점이 좋아”

② 순화된 말* 말하기

예) 쪽팔린다 → 창피하다, 부끄럽다

개 → 매우, 엄청나게

* 순화된 말: 고운 말, 바른 말, 쉬운 말 사용하기

“따순말”은 나와 친구를 위하는 말!
“따순말”로 따수운 학교 생활 만들어 봄!



이벤트 접수하기